

고은 불교 대하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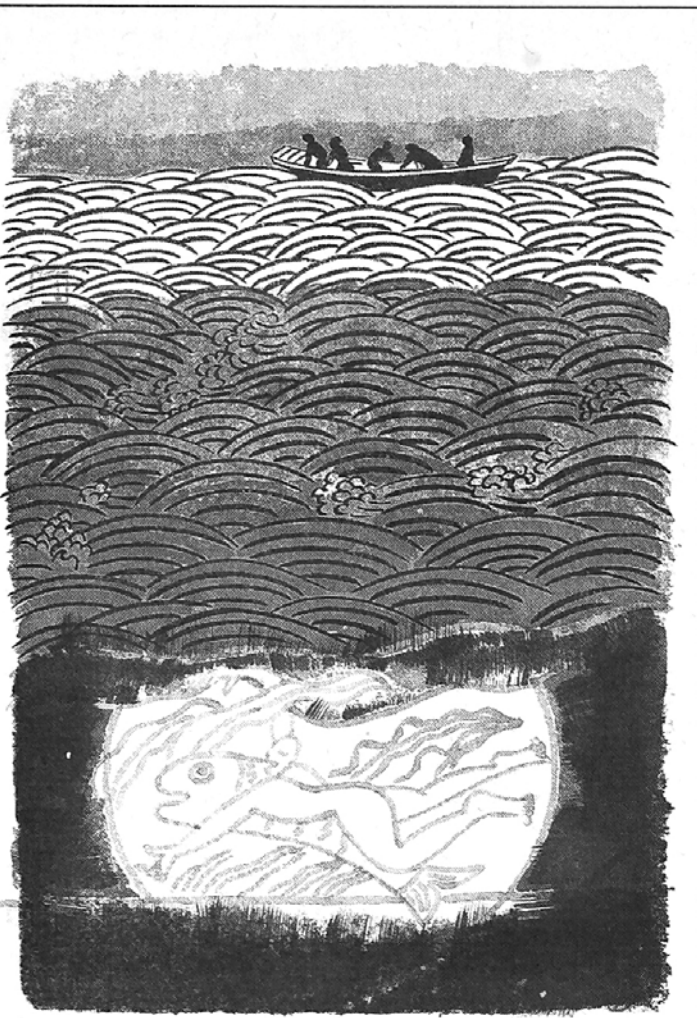


그림 · 조향숙

수장(水葬)의 날

인답이 허리를 굽혀 무전의 가슴에 귀를 기울였다. 가슴의 고동소리가 날 리 없었다. 얼굴빛이 굳어져 있었다.

만화가 그런 무전의 다리를 꼭 껴다. 배의 마디가 어긋나는 부드러운 소리가 났다. 굳이 코구멍에 숨을 대어 숨뿔로 숨을 재빨 필요도 없었다.

"갓소."

인답이 무전의 죽음을 낮은 소리로 알았다.

"바로 대비처(茶毘處)를 만들도록 합시다. 서쪽 기슭의 언덕을 잘 치우시오. 푸나무를 베고 대비에 쓸 화목을 만들어야겠어요. 마른 장작과 함께 쓰도록 대비하십시오. 3일장으로 합시다."

무욕도의 비구 7명이 한 명의 시신 앞에서 마치 그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이끌어 내려는 것 같은 비장한 눈길을 서로 교차 시키고 있었다.

이 사실은 큰방 밖에도 그대로 연장되고 있었다. 밖에서 몇번인가 발을 툭툭 구르다가 진정된 합두가 가벼운 한숨을 내뿜었다.

"이 섬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은 배를 타는 일 밖에 없다고 하더니 배도 없이 떠나셨습니까?"

마치 누구에게라도 말하는 것처럼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을 들었는지 우녀가 막 나타나 합두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는 것이었다.

"무전스님의 입적(入寂)이십니까?"

"네에."

그때 인답이 방에서 나왔다. 그가 3일장의 화장(火葬)을 말하자 우녀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스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비식에는 많은 화목(火木)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이곳의 나무들을 꽤나 잘라 써야겠지요... 그보다는..."

"그보다는?"

인답이 물었다.

우녀가 바다의 거칠어진 파도를 보고 있었다.

"이 바다에 띄워 무전스님으로 하여금 세상에 몸을 공양(供養)토록 합시다... 무릇 산 것은 죽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도 어떤 정(情)을 기울일 것도 없습니다. 아마 무전스님의 뜻도 그러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모를 일입니다."

인답은 그 말을 듣고 난 뒤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 모습은 단단히 긴장하고 있었다.

"스님의 뜻대로 하시지요"라고 우녀가 양보하였다.

그때 인답이 그 자신의 생각을 포기할

판도방인 큰방에 불을 때지 않았다. 방의 윗쪽에 시신을 이불호정으로 덮어두었다.

그 시신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이곳의 사람들이 경시 그대로 들어와 있었다. 물론 우녀와 합두도 들어와 문득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았고 그녀들의 허리가 쪽쪽의 부분처럼 고통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시신과 함께 그들의 정진은 파도소리 밖에는 어떤 소리도 없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장례의 5방례(五方禮)도 없었다. 한 가운데 있는 노사나불도 동방의 만월세계 약사불, 서방의 아미타불, 남방의 환희세계 보살불, 북방의 무우세계 부동존 불을 향해서 예경(禮敬)하여 영가(靈歌)를

나온 꺾꽂이의 붉은 피와도 같은 맹렬한 추구(追究)의 힘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건드리지 말라. 건들자마자 불길을 뿜어대는 만년(萬年)의 바위덩어리이다.

이런 일촉즉발(一觸即發)의 경계 가운데서 정진이 바로 무전의 시신과 하나가 되는 순수한 무아(無我)인 것인가.

이렇게 사흘째 되는 아침에야 무릎을 파 바깥구경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마음을 놓아버릴 처지가 아니었다.

먼저 바다 위에 띄운 배를 잘 정비해야 하였다.

普放金色照人天
應物現形潭底月
體圓正坐寶蓮台

배는 노를 젓는 민화가 가만히 있어도 벌써 섬을 저만큼 두고 나아가고 있었다. 파도는 넓적넓적하였다. 그러므로 배도 완만하게 그런 파도를 타고 넘는 것이었다.

우녀는 문득 여기서 북쪽으로 가면 가장 험악한 물결인 황해도 장산곶의 앞바다에 공양미 3백석 때문에 치마폭을 쓰고 물속에 몸을 던진 처녀 심청의 죽음을 생각하였다. 그 처녀의 몸도 고기밥이 되었을 것이다. 그 고기밥의 왕이 바로 수중(水中)의 용왕(龍王)이 아니던가.

배는 실컷 나갔다. 가능한 한 무욕도로부터 멀리까지 나아갔다. 돛은 조의(弔意)를 품고 반쯤만 올렸지만 거기에 붙어 오는 바람에 의해서이긴 하지만 파도에 의해서 잘도 나아가는 것이었다.

배 위의 시신이나 사람들은 전적으로 그런 파도와 바람에 그 자신들을 의지하고 있었다.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여기면 되겠습니까?"

라고 우녀가 돛을 내리게 하였다.

과연 돛빛이 검을 정도로 짙었다. 바다에도 무덤자리가 있던 말인가.



27

"49재를 지낼때까지는 어디를 떠돌까요" "오늘이 49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일은 이미 천고(千古)의 것인데 언제 우리가 오늘의 일을 헤아릴 수 있겠소"

수 있었다.

"아닙니다. 우녀스님이 무전스님의 발원(發願)을 잘 아신 것입니다. 3일장에는 변함없이 바다 위에 무전의 영단(靈壇)을 짓도록 합시다."

그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대비처 만드는 일을 철회시켰다.

그러나 수장(水葬)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만화였다.

"이 바다를 송장이나 떠 다니게 할 작정입니까? 고기들에게 먹이로 바치는 일이 아니라도 고기들은 얼마든지 제 먹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먹이사슬 가운데는 종의 송장을 뜯어먹는 것 없이도 완만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

"그럼 편더라... 저는 제가 다니던 풀에 죽은 사람의 몸이나 내던지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산마루의 정사(精舍)로 가서 묵은 공부나 하며 무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때 우녀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약간 새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이 세상에 허공메만한 것이 없고 바다만한 것이 없습니다. 바다에 썩은 육신을 띄워두고 그것까지를 잔물로 만드는 것이 바다입니다. 만화스님! 무전스님의 왕생(往生)을 위하여 우리 무욕도 회상이 타부터 시간을 보내지 맙시다."

불이가 말하였다.

"옛 천축에서도 화장 매장 조장(鳥葬) 수장이 다 있었습니다. 화장은 바라문들이 독차지하는 호화로운 장례였습니다... 수장을 우리 장례로 삼읍시다."

이윽고 만화가 그의 주장에서 물러섰다.

"정말 그렇다면 그럴 수밖에요..."

인답은 만화의 말 뒤에 무전을 위한 정진을 하기로 하였다.

천도해주기를 간청하는 예식 말이다.

시방세계(十方世界) 어디인들 극락이 없지 않으려만 여기서는 5방으로 집약하는 터이다.

그들에게는 이런 예식조차도 정진으로 매워져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그 정진을 멈추지 않은 표상을 남기고 있었다.

공양시간에만 두 여자와 남자가 후원으로 나가 있었고 하루에 한 끼니만으로 지내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배가 고파도 시신 앞에서 배고플 수 없는 육중한 비장함에 잠싸인 것이 그들의 다문 입 속의 어둠 같은 정진이었다.

정진을 다만 밖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런 뜻도 먹여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풀 먹은 병어리가 되어 앉아있으니 차라리 윗목의 송장처럼 누워서 고이 잠이나 들을지니라 하고 비어남 대가에도 걸맞은 일이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다 준비처럼 엮어다가 나라의 큰 공사에나 사역(使役)을 시킬 일인지도 모른다.

수월이 풀고 있었다. 그렇게 조느니 마땅에 나가 수광선 위의 한 점 배의 출현(出現)이나 바라볼지니라 하고 먹살을 잡아 끌어낼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의 내면은 방금 터져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천축 왕사성 밖의 시타림(尸陀林-寒林)에 시신을 놓아두면 독수리떼가 날아와 단번에 먹여치우는 조장(鳥葬)이 가장 적나라하다.

하지만 이 무욕도에서는 수장이 가장 어울린다고 우녀는 여겼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천축 왕사성 밖의 시타림(尸陀林-寒林)에 시신을 놓아두면 독수리떼가 날아와 단번에 먹여치우는 조장(鳥葬)이 가장 적나라하다.

하지만 이 무욕도에서는 수장이 가장 어울린다고 우녀는 여겼다.

오직 영가의 앞 수미산을 향할지이다 (已向靈前須彌山)

이라고 인답이 소리쳤다. 그 회향계(回向偈)의 소리가 끝나자 무전의 시신은 양쪽에서 둘러 한번 뒤로 들어 올려졌다 앞으로 훌쩍 던져졌다. 그 시신이 파도 속에 던져지면서 하마터면 배가 뒤집힐 뻔 하였다.

그들은 시신이 물위에 떠오르든지 가라앉든지 더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었다.

만화의 노련한 솜씨로 배는 노를 저어 가며 멀리 나와버린 곳에서 그들의 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우녀의 눈에 눈물 한 방울이 파도자락의 물 한 방울로 여겨지며 매달렸다가 없어졌다.

누군가가 말하였다.

"49재를 지낼 때까지는 어디를 떠돌까요?"

인답이 대꾸하였다.

"오늘이 49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일은 이미 천고(千古)의 것인데 언제 우리가 오늘의 일을 헤아릴 수 있겠소?"

이 말에 사람들은 다시 입을 열지 않았다.

배가 무욕도의 선착장에 닿았다. 사람들은 배에서 내렸다. 그때까지 입은 닫혀 있었다.

"이 바다에 띄워 무전스님으로 하여금 세상에 몸을 공양토록 합시다. 무릇 산것은 죽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도 어떤 정(情)을 기울일 것도 없습니다"

봉 부처님 오신날, 온누리에 부처님 광명의 빛 가득하게 하소서 축

대한불교조계종 보현산보현사

주 지도 완
신도회장 이달영
대 종 일 동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산544
☎ (0391)42-9437

청룡사

정몽유지원

주 지 이진우
신 동 일 동

서울시 종로구 승인동 17-1
☎ 744-6168

통도사 부산포교원

원 장 태 응
주 지 심 산
공창종합사회복지관 (부설)어린이집, 노인정
재가복지센터

(포교원)부산시 진구 부전1동 390의 34
☎ 816-2241
(복지관)부산시 북구 금곡동 53의1
금곡주공1지구 1단지
☎ 361-2063

금강아카데미

원 장 석 지형
동 문 일 동
회 원 일 동

부산시 남구 대연동 172의 5
☎ 621-8548 621-8549

기원정사

회 원 일 동
신 동 일 동

서울시 성동구 중곡4동 104-59
☎ 447-1344

사천왕사

주 지 현 능

노원구 상계6동 주공 3단지
일신플라자 401호
☎ 939-3900, 938-3900

학림사

조 실 송 월 주
회 주 최 도 원
주 지 석 덕 모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번지
☎ 936-1700, 4100

무애원포교당

원 장 설 불
신 도 일 동

서울 영등포구 신길 6동 3611
☎ 846-2156

강 광 무 애 원

경기도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사적골
☎ (0349)32-5087~8

불광불교미술원

대 표 박갑용

서울시 강동구 성내2동 136-6
☎ 485-2991

법성사

주 지 이석천
신 도 일 동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2가 산23-14
☎ 651-4382

도림사

주 지 정창교
신 도 일 동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76-75
☎ 815-6516

바른불교·실천불교 석왕사

조 실 오 고 산
주 지 임 영 달
사 부 대 종 일 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2동 산29-30
☎ (032)663-7771~5